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2.16(금) ~ 2024.2.22(목)

제공일시 2023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2.16(금) ~ 2024.2.22(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탄소제거인증' 프레임워크 타협안 합의... 높아지는 기후장벽

- 유럽연합(EU)이 탄소제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도입함. 우리나라의 대유럽 무역을 가로막는 기후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21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EU 차원의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함
-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토양 온실가스 제거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임
- EU가 탄소제거 인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전자신문 2024.2.21) 윤희석 기자

2. 빅테크에 칼 빼든 EU... 애플에 7200억원 과징금 이어 틱톡도 조사/EU, 틱톡 '미성년자 보호' 위반 여부 조사

- EU가 애플에 대한 7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이어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애플을 시작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는 모양새임
-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힘
-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날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디지털데일리 2024.2.20) 이나연 기자

(이데일리 2024.2.20) 양지윤 기자

3. 미 에너지부, 해상풍력단지 지속 가능성 보장 이니셔티브 시작

- 미 에너지부(DOE)가 바람예보 개선사업(Wind Forecast Improvement Project, WFIP)을 통해 미 북동부 해상풍력단지 인근의 기상, 해양, 야생생물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계획임
- 지난 16일(현지시각) 클린테크니카(CleanTechnica)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당일 에너지부와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미국 북동부 해안의 해상풍력단지와 임대 지역 인근에서 광범위한 날씨, 해양, 야생동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18개월 계획을 시작함
- 이번 사업은 해상 풍력 터빈 및 풍력 발전소의 설계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함
- 수집된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상 풍력 현장, 기상 예측 및 그리드 통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풍력 발전소 모델링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임팩트온 2024.2.19) 최동훈 기자

1. 환경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DPF 부착한 4등급 경유차도 보조금 준다

- 19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함
- 지침에 따르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의 잔존가치를 100% 지원하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계획임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임

(스마트에프엔 2024.2.19) 박재훈 기자

2. 범람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표준 만든다

- 기후위기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 다양해진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됨
-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계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임
- 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을 정립하고, △식량 △수자원 △에너지 △방재 등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기후위기 영향을 진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임

(내일신문 2024.2.21) 김아영 기자

3. “컨설팅부터 검증까지”…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안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힘
-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됨
- 지원대상은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임.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임
- 선정기업은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음

(뉴스1 2024.2.21) 이민주 기자

4.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중진공, 128억 지원 나선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힘. 기한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임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자발적으로 저탄소 공정전환을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실시설계 컨설팅,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일괄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 탄소감축을 뒷받침하는 것임
- 실시설계 컨설팅은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정을 분석해 단계별 탄소감축 방안을 제시함
- 탄소저감 설비도입은 해당 설비 구입비의 70%, 최대 3억원 이내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함

(뉴스스 2024.2.19) 이수정 기자

1. 엑손모빌 EU에 ‘환경규제 완화’ 요구, 수천억 달러 규모 자금 철수 압박도

- 미국 정유 대기업 엑손모빌이 EU에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수천억 달러 규모 자금 철수 가능성을 내비침
- 향후 친환경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자금이 필요한 EU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2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EU가 최근 확대하고 있는 환경규제를 놓고 ‘유럽 경제의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라고 비난함
-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EU가 확대하고 있는 환경규제를 향한 에너지, 철강 대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엑손모빌 임원이 입을 연 것이라고 풀이함

(비즈니스포스트 2024.2.21) 손영호 기자

2. 美 리비안, 전기차 배터리 자체생산 포기

-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됨. 많은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사례임
- 21일 업계에 따르면, 리비안은 자체 배터리 생산을 포기하고 장비 구매 해지와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리비안은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100기가와트시(GWh) 규모 배터리 공장을 구축할 준비를 해왔는데, 구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고된 장비를 되파는 작업을 진행 중임
- 리비안이 내재화 계획을 포기한 것은 배터리 생산이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임. 리비안의 결정은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산업의 진입장벽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줌

(전자신문 2024.2.21) 정현정 기자

3. 한국 소비자에 친환경 강조한 룰루레몬, 해외서는 ‘그린워싱’ 조사

- 룰루레몬이 캐나다에서 그린워싱 기업으로 조사됨
-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탠드어스는 캐나다 경쟁당국에 제출할 고소장에서 “룰루레몬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객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룰루레몬의 그린워싱 관행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함
- 스탠드어스는 룰루레몬이 2020년에 처음 발표한 임팩트 어젠다 중 ‘비 플래닛(Be Planet)’ 마케팅 캠페인을 문제 삼고 있음
- 룰루레몬은 2018년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 Scope(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가가치 단위당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출량이 128.6% 급증했다고 주장함

(1코노미뉴스 2024.2.15) 조가영 기자

4. 중국 CATL, 나트륨배터리 관련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출원

-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 CATL이 나트륨(소듐) 배터리와 관련한 국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전해짐
- 18일(현지시각) 중국 시장조사업체 상하이 메탈 마켓(SMM)에 따르면, CATL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나트륨 배터리 관련 국제특허(PCT)가 공개됨
- 특허 이름은 ‘나트륨-이온 배터리 전해질, 2차전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및 전기장치’이며, 특허 번호는 ‘PCT/CN2022/108955’임

(비즈니스포스트 2024.2.19) 이근호 기자

5. 앞서서 돈 버는 테슬라... 경쟁사에 탄소배출권 판 돈만 12조원

- 테슬라가 탄소배출권(탄소크레딧)을 팔아 벌어들인 돈이 2009년 이후 총 90억달러(약 12조원)에 이룸
- 최근 발표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17억9000만달러(약 2조 3800억원)의 탄소크레딧을 판매함
- 테슬라는 전기차를 제조·판매해 얻은 탄소크레딧을 중국, EU, 미국 캘리포니아 등 주요국 평균 배출가스 제한을 초과한 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 주로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혼다, JRL(옛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테슬라의 탄소크레딧을 구매하는데, 이들 회사는 전기차 판매가 저조해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조선일보 2024.2.15) 박진우 기자

1. 금호석유화학 등 3사, 친환경원료 공급망 확보 나선다

-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과 손잡고 바이오 원료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 (아시아투데이 2024.2.20) 김한솔 기자
-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9일 SK지오센트릭, 동서석유화학과 지속가능한 바이오 원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힘
- 이번 협약으로 3사는 기존 원료 공급망에서 모노머인 AN(아크릴로니트릴), BD(부타디엔)를 바이오 모노머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 동서석유화학이 SK지오센트릭의 바이오 프로필렌을 원료로 한 바이오 AN을, SK지오센트릭이 바이오 BD를 각각 금호석유화학에 공급하는 구조임

2. SK하이닉스, 3월 세계 최초 HBM3E 양산

- SK하이닉스가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E 양산을 시작함. 다음달 중 초도물량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계획임 (머니투데이 2024.2.20) 한지연, 임동욱 기자
- 메모리반도체 빅3(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HBM3E의 양산과 공급사 납품에 들어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글로벌 HBM 경쟁에서 승기를 잡음
-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 HBM3E는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인공지능(AI)용 GPU(그래픽처리장치) B100에 들어감

3. 삼성, 美 비희토류 영구자석 기업 투자... 中 제재 돌파구 찾기 분주

- 삼성그룹의 기업벤처캐피털(CVC) 삼성벤처투자가 비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나일론마그네틱스(Niron Magnetics)에 투자함 (더구루 2024.2.21) 홍성환 기자
-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비희토류 영구자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모습임
- 나일론마그네틱스는 21일 2500만달러(약 330억원) 규모로 신규 자금조달을 완료했다고 밝힘
- 이번 라운드는 삼성벤처투자가 대표로 주선함. 세계 최대 상용차용 전자동 변속기 제조업체 앨리슨트랜스미션 산하 앨리슨벤처스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회사 마그나가 투자함

4. '테슬라 배터리' 양산 준비하는 LG엔솔... K-배터리 자존심 세운다

-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배터리'로 통하는 차세대 4680(지름 46mm·길이 80mm) 원통형 배터리 양산 시점을 밝히며 K-배터리 자존심 세우기에 나선다 (아이뉴스24 2024.2.18) 송대성 기자
- 4680 배터리는 업계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배터리로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음 (뉴스스 2024.2.16) 이다솜 기자
-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발 빠르게 양산에 돌입할 예정임
-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4680 배터리를) 우선 한국에서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함

5. 기아, 여성 사외이사 비율 50% 넘는다... 현대차그룹 최초

- 기아가 다음 달 1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아이타임즈 2024.2.17) 류승우 기자
- 16일 기아는 이번 주총에서 최준영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임을 공시함. 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2명 중 한 명은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선임되며, 또 다른 한 명은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에 이어 이인경 MBK 파트너스 부사장(CFO)으로 새롭게 선임될 것임
- 이로써 기아의 사외이사진은 조화순 교수, 전찬혁 세스코 대표이사 회장,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신현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이인경 부사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될 예정임. 이 중 3명이 여성임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2.16(금) ~ 2024.2.22(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캘리포니아주, 청정 교통 인프라에 2조5355억원 투자

-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EC)는 전기차 충전과 수소연료 보급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해 무배출 차량(ZEV)과 운송 인프라 확장을 목표로 2027년까지 19억달러(약 2조5355억원)를 투자한다고 ESG투데이가 19일(현지시각) 보도함
- 캘리포니아주는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기준도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주이고 전기차도 잘 팔리는 주임. 더 나아가 2045년까지 운송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움
-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픽업트럭, SUV를 ZEV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공기자원위원회(CARB)가 2022년 8월 승인함
- 이런 야심 찬 목표 외에도 이 규칙은 ZEV의 요구 사항에 대한 연간 로드맵을 제공하며, ZEV는 2026년 최소 35%를 구성하고 2030년에는 68%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임
- 연료 생산을 포함한 교통은 캘리포니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약 절반, 주 대기 오염물질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CARB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2040년까지 자동차, 픽업트럭, SUV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덧붙여 캘리포니아주는 2036년까지 디젤 트럭의 판매를 중단시키려고 함. CARB는 지난해 5월 2036년까지 중형 및 대형 내연기관 트럭 판매를 종료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해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규칙의 승인을 발표함
- 트럭은 도로 위 차량의 약 6%만 차지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도로상 GHG 배출량의 약 4분의 1, 질소 산화물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도 대형 장비, 지역 배송 및 정부 차량은 2035년까지 ZEV로 전환해야 하며, 쓰레기 트럭은 2035년까지 전환해야 함. 2039년까지 특수 차량, 기타 모든 트럭은 2042년까지 적용됨
- CARB는 새로운 트럭 규정 외에도 새로 건설되는 여객 열차는 2030년까지 배출가스 제로, 화물 열차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사용 중 기관차 규정도 채택함
- 한편, 2027년까지 배출가스 제로 배터리 전기 및 수소 연료전지 트럭 및 버스 인프라에 10억달러(약 1조3350억원) 이상, 경량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6억5000만달러(약 8677억원) 이상, 배출가스 제로 항공 인프라에 1억3000만달러(약 1735억원)가 투입됨
-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EC)는 투자의 최소 50%가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CEC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 계획은 주 전역에 4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기존 9만4000개의 충전기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하고 향후 몇 년 내에 25만 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임팩트는 2024.2.21) 홍명표 기자